

## 한국시리즈 앞두고 광주는 'KIA 앞이'

타이거즈 연습경기에 구름 관중  
초등학교 운동회 선수들 응원가  
KS 입장권 확보 비법 공유도

광주 팬들의 못 말리는 'KIA 앞이'가 포스트 시즌 기간 연일 화제다. <관련기사 2면, 18면>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연습 경기에 구름 관중이 몰리는 등 응원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광주지역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는 흥을 돋우는 음악으로 KIA의 주포인 소크라테스 응원가 등이 울려 퍼질 정도다. 광주에선 요즘 초등학교에서 삼삼오오 모여 흥이 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KIA 타이거즈 응원가를 합창하는 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17일 KIA 타이거즈 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상무야구단과 연습경기가 열린 챔피언스필드에 1만 5145명이 입장해 한국시리즈 본경기를 방불케하는 응원열기로 그라운드를 채웠다.  
팬들의 KIA 사랑은 곳은 날씨도 막지 못했다. 지난 14일 롯데 자이언츠와 연습경기는 비 예보 때문에 오후 6시 경기를 1시로 변경했지만 아랑곳 않고 6744명 입장해 KIA 타이거즈를 목놓아 외쳤다.  
KIA는 팬들을 위해 연습경기 관중석을 무료로 개방한 데 이어 예상보다 많은 팬이 예매에 나서자 애초 계획과 달리 5층 관중석까지 열었다. KIA는 연습경기 예매자에 한해 예매사이트 수수료만 받고 무료 입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팬들은 무료관람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구매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무료티켓은 벌써 당근마켓에 매물로 나올 정도다.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법을 공유하는 팬도 있다.

타켓팅 성공을 위해 고성능 PC를 보유한 PC방을 몰색하고 자신들의 타켓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애타는 팬심을 파고드는 대리 타켓팅 광고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초등학교들에게 KIA 타이거즈 사랑은 일상이 됐다. 좋아하는 선수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입고 등교하거나 친구들과 '뽕빼기' KIA 타이거즈 응원가를 부르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17일 풍암초 가을운동회에서는 소크라테스 응원가가 운동회 주제곡으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KIA 타이거즈 치어리더도 귀한 손님이 됐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뽕빼기 춤'을 집중 조명하는 바람에 일약 스타가 됐다.  
이들은 광주를 대표하는 총장축제 개막식 직전 무대에 올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뽕빼기 춤'을 선보여 열렬한 감탄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는 "총장축제에 참가한 광주의 한 마을에서 KIA 타이거즈 응원가를 개사해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특정 동아리 마을에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우려가 있어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동안 KIA가 팬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올해는 유독 팬들의 열기가 뜨거워 당황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진행한 축제 통합 플랫폼 'G-페스타' 홍보영상에도 출연해 인기를 실감케했다.  
팬들의 KIA 사랑을 매출로 연결하려는 마케팅도 잇따르고 있다. 기아는 정규시즌 우승 기념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의 기아 지점, 대리점, 드라이빙센터에서 선물 이벤트를 열고 있다. 삼성스토어는 광주연합 행사 이벤트를 사은품을 걸고 2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팀 맞추기 행사를 열고 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인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

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 한강 "책 속에서 독자들 계속 만나고 싶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17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니정재단은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작가 한강 씨를 선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노벨문학상 수상 후 첫 행사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참석 "지난 일주일 특별한 감동 ... 저의 일상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기를"

"지난 일주일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 될 것 같습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17일 오후 강남구 포니정홀에서 열린 비공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언론 접촉을 고사했던 한 작가는 수상 후 첫 공식 행사인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서 신작 집필 계획 등을 전했다.  
행사장 로비에에는 의신과 시인, 취재진이 몰렸으나 한 작가는 별도의 입구로 행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취재 제한이 없었음에도 행사 또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강은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믿고 바라다"고 했다.  
신작 집필 계획에 대해서도 "올봄부터 써온 소설을 내년 상반기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작품을 완성하는 시점을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

기에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 작가는 여태 글을 쓰며 보내는 시간이 "삼십년의 곱절인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했다. 7-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도 있으나 그것은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라며 "6년 뒤 이순(60세)이 되는데 그동안 마음속에 굴리고 있는 책 세 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했다.  
한 작가는 "살아 있는 한 언제까지나 세 권씩 앞에 밀려 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가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면서 "참

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고 삶을 보살피는 '균형'을 잡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이날 한강은 문학 독자와 문학 출판에 이어가는 출판계 종사자, 서점인 및 동료 선배 작가들도 언급했다. 가족과 친구, 포니정 혁신상을 수여하는 재단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2007년부터 시행한 '포니정 혁신상'은 문화, 예술,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인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수상해 왔다.  
역대 수상자로 만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조성진, 경제학자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5·18 위자료 차이' 국감 쟁점으로 ▶6면
- 북스 - '눈 뇌 문학' '대환란의 세상...' ▶14·15면
- KIA, 한국시리즈에서는 00가 미친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Jeolla Namdo

# 솔라시도

SolaSeaDo

## 힐링과 스포츠의 천국, 모두 즐기는 특별한 여행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해남 산이정원

솔라시도 컨트리클럽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코스모스링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